



“실수를 막아라”



4년 만에 '가을 잔치'에 합류한 KIA의 내야에 눈길이 쏠린다.

KIA 타이거즈는 시즌 마지막까지 NC와 치열한 5위 싸움을 한 끝에 와일드카드 결정 무대에 올랐다. 이와 함께 KIA는 지난 2018년 넥센(현 키움)과 와일드카드 결정전 이후 4년 만에 가을 야구를 치르게 됐다.

KIA의 여정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

5위로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올랐기 때문에 무조건 1차전을 이겨야 2차전까지 치를 수 있다. 준플레이오프까지 오르려면 2승이 필요하다.

2015년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도입된 이후 아직 준플레이오프까지 오른 5위 팀은 없다.

KIA도 2016년과 2018년 5위로 와일드카드에 진출했지만 더 높은 곳에 오르지는 못했다.

7번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2차전까지 진행된 경우도 2번 밖에 없다. 2016년 5위 KIA가 4위 LG와의 경기에서 1차전 4-2 승리를 거둔 뒤, 2차전에서 0-1 패로 지면서 아쉬움을 삼켰다.

2021년에는 5위 키움이 4위 두산에 7-4로 꺾은 뒤 2차전에서 8-16패를 당하며 준플레이오프 진출이 무산됐다.

비기지만 해도 다음 관문으로 넘어갈 수 있는 4위와 달리 무조건 2승을 해야 다음을 기억할 수 있는 만큼 '실수'에 승패가 갈릴 수 있다.

두산에서 가을 DNA를 더한 내야수 류지혁은 "두산에 있을 때 형들이 큰 시합은 누가 잘하느냐

KIA, 4년 만에 가을잔치 합류 무조건 2승 해야 준PO 진출 큰 경기서는 실책이 승부 좌우 수비의 핵심 박찬호 역할 중요 공격은 황대인 방망이에 기대

가 아니라 누가 못하느냐의 싸움이라고 했다. 실수 안 하는 팀이 이기는 것이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류지혁의 이야기대로 큰 무대에서는 실수에 흐름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 실책이 경기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야수들 특히 내야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KIA는 올 시즌 시작부터 실책으로 고전했다. LG와의 개막전에서 노련한 김선빈이 연속 실책으로 고개를 숙였고, KIA는 4월 24경기에서 30개의 실책을 쏟아내면서 초반 행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내야 안정화 속에 타선이 폭발하면서 18승 8패의 뜨거운 5월을 보내며 순위 싸움의 발판을 마련했다.

가을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자 주장인 김선빈과 역시 가을을 즐기는 류지혁이 중심을 잘 잡으면서 긴장감 가득한 승부를 이끌어야 한다.

처음 가을 잔치를 맞는 황대인과 박찬호는 각각

공격과 수비-주투의 핵심이다.

올 시즌 황대인의 활약은 팀의 승리로 연결되곤 했다. 황대인이 필필 날았던 5월 KIA도 고공행진을 했다. 올 시즌 황대인은 14개의 홈런을 기록했고, 황대인이 홈런을 친 경기를 통틀어 KIA의 성적은 12승 2패를 기록했다.

나성범, 최형우 두 베테랑 외에 황대인의 활약 여부에 따라 KIA의 가을 여정도 달라질 전망이다.

박찬호의 안정감 있는 수비도 승리의 필수요건이다. 박찬호는 올 시즌 호수비 열전을 펼치며 박수를 받았지만, 아쉬운 실수도 여러 차례 남겼다. 박찬호의 실수는 실점으로 연결되곤 했던 만큼 '철벽수비'가 필요하다.

도루왕의 면모도 보여줘야 한다. 박찬호는 올 시즌 42차례 베이스를 훔치면서 KIA 유일의 '타이틀 홈런'이 됐다.

도루는 상대의 허를 찌를 수 있는 전력 중 하나다. 박찬호의 센스가 KIA의 가을 야구에 필요하다.

'막내' 김도영에게도 눈길이 쏠린다. 단순 스피드 하나로는 KBO리그에서도 손에 꼽는 김도영이다. 김도영은 지난 6일 LG전에서 대주자로 나가 그린 라이트로 도루에 성공했다. 김도영의 도루에 흔들린 LG 배터리는 이후 박동원에게 역전 투런을 허용했다.

올 시즌 상대전적에서 열세를 보인 '난적'을 상대로 역전극을 연출하기 위해 KIA 내야의 활약이 필요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파키아오, 한국에서 링에 오른다

12월 11일 무술가 유대경과 2분씩 6라운드 스페셜 매치

필리핀 출신의 전설적인 복싱 선수 '팩맨' 매니 파키아오(44)가 12월 한국에서 다시 링에 오른다.

파키아오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출신 무술가이자 인플루언서 유대경과 스페셜 매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뒤 "이 경기가 이뤄진 것만큼 감사한 일 없다. 스페셜 매치라고 해도 다른 경기와 차이를 두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월 11일 오전 11시 일산 킥박스에서 열린 스페셜 매치는 라운드당 2분씩 총 6라운드를 진행한다.

파키아오는 대전료 전액을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복구를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

16살에 프로 복싱 무대에 뛰어들어 세계 최초로 8체급을 석권한 파키아오는 2021년 9월 요르데니스 우가스(쿠바)전을 끝으로 정계 진출을 선언하며 링을 떠났다.

필리핀 집권 여당인 필리핀 민주당 대표로 선출돼 정계에서도 성공 가도를 달리던 그는 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에서 탈락하자 신당을 창당했다.

그러나 올해 5월 열린 필리핀 대선에 출마한 파키아오는 득표율 6.81%로 3위에 그쳤다.

정규 복싱 경기가 아닌 무술가와 이벤트 경기를 복귀전으로 삼은 파키아오는 "이번 경기는 실전처럼 할 것이다. 누가 이길 거라고 말은 못 하고, KO로 승자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복서로 복귀할지, 스페셜 활동을 이어갈지는 이번 경기를 통해 결정하겠다. 체력과



필리핀 복싱 영웅 매니 파키아오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메타버스 아바타 기자회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몸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 지금은 몸 상태와 컨디션이 너무 좋다"고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파키아오와 맞대결하는 유대경은 자신을 격투가 대신 무술가로 소개하는 인물이다.

지난해 유대경은 UFC 출신 선수인 브래들리 스킷(영국)과 복싱 룰로 6라운드 경기를 펼쳐 판정 패했다. /연합뉴스

손흥민의 토트넘, UCL 첫 승 노린다

13일 프랑크푸르트와 경기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손흥민(30)이 프랑크푸르트(독일)를 이번엔 안방으로 불러들여 득점포와 팀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무승 탈출을 노린다.

토트넘은 13일 오전 4시(한국시간)부터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프랑크푸르트와 2022-2023 UCL 조별리그 D조 4차전 홈 경기를 치른다.

토트넘은 지난 조별리그 3경기에서 1승 1무 1패로 승점 4를 쌓아 스포르팅(승점 6)에 이어 D조 2위를 달리고 있다.

토트넘은 1차전에서 마르세유(프랑스)를 2-0으로 물리쳤으나 이후 스포르팅에 0-2로 지고 5일 프랑크푸르트 원정 3차전에서 0-0으로 비겼다.

8일 만에 다시 만나는 프랑크푸르트는 토트넘과 마찬가지로 1승 1무 1패를 기록 중으로, 이번 두 팀의 맞대결은 16강 진출의 분수령으로 꼽을 만하다.

승점이 같은 프랑크푸르트에 덜미를 잡히면 토트넘으로선 UCL 무승이 3경기로 길어지며 16강 진출을 위해 남은 2경기에서 험로를 피할 수 없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이번 시즌 3골을 넣고 있으나 UCL에선 아직 골 맛을 보지

못한 손흥민은 프랑크푸르트의 골문을 다시 한번 정조준한다.

손흥민은 풋볼 런던 등 현지 매체에 실린 인터뷰에서 "솔직히 우리는 지난 원정 경기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다. UCL 원정에서 승점을 따는 건 항상 어려운 일이라 승점을 갖고 온 것 자체는 좋지만, 이길 기회가 있었기에 모두가 속상했다"며 "이 경기가 얼마나 중요하진 모두가 알고 있다"고 승리를 다짐했다.

토트넘은 16일엔 에버턴과의 리그 홈 경기, 20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를 치른다.

A조에 속한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26)의 소속팀 나폴리(이탈리아)는 한국시간으로 13일 오전 1시 45분 아약스(네덜란드)와의 홈 경기를 준비한다.

이탈리아 세리에A에서 개막 9경기 무패(7승 2무)로 선두(승점 23)를 달리는 나폴리는 5일 3차전에서 김민재의 풀타임 활약 속에 아약스를 6-1로 대파하며 UCL 3연승으로 A조 선두(승점 9)에 올라 있다.

나폴리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면 현재 3위인 아약스(승점 3), 4위인 레인저스(스코틀랜드·승점 0)와 격차를 승점 9 이상으로 벌리게 돼 남은 조별리그 결과와 관계없이 16강 진출을 조기 확정할 수 있다. /연합뉴스

‘신 스틸러’ 김하성, 다저스전도 시선 강탈 준비

샌디에이고 WC 승리 이끌고

오늘 LA 다저스전 선발 출전

코리안 빅리거 '가을의 전설'을 새로 써가는 김하성(27·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미국프로야구 포스트시즌 2차 관문인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NLDS·5전 3승제)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간다.

와일드카드 시리즈(3전 2승제)에서 뉴욕 메츠를 2승 1패로 꺾은 샌디에이고는 12일 오전 10시 30분(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스타디움에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NLDS 1차전을 치른다.

빅리그 진출 2년 만에 처음으로 가을 야구 무대에서 '물 만난 고기' 마냥 축제를 즐긴 김하성은 다저스를 상대로 한 NLDS에서도 당당히 주전 유격수로 라인업의 한 자리를 채울 예정이다.

김하성은 안정적 수비, 과감한 주루, 위축되지 않는 타격으로 큰 경기 체질을 유감없이 뽐냈다.

몸을 사리지 않는 김하성의 허슬 플레이에 감동한 샌디에이고 팬들은 적극적인 응원군이 됐다.

'언더 독'(약팀)의 약점을 극복하고 올해 정규리그에서 101승을 거둔 메츠를 거꾸러뜨린 샌디에이고가 111승으로 구단 최다승 신기록을 작성한 다저스를 상대로도 저력을 발휘할지 시선이 쏠



김하성

린다.

샌디에이고는 다저스타디움에서 벌어지는 1~2차전에 마이크 클레빈저, 다르빗슈 유를 차례로 선발로 내보낸다. 다저스는 홀리오 우리아스, 클레이턴 커쇼를 맞붙을 놓는다.

김하성은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8타수 2안타를 쳤다.

8일 1차전에서 역대 한국인 빅리거로는 4번째로 포스트시즌 안타를 신고하고, 메이저리그 가을 야구 데뷔전에서 한국인 최초로 멀티 히트(한 경기 안타 2개 이상)를 치며 불넷을 합쳐 세 번이나 출루해 새 이정표를 남겼다.

또 3차전에서는 볼넷 3개를 얻어 세 번 모두 홈을 밟고 도루도 하는 등 인상적인 발 야구로 팀 승리에 큰 힘을 보탤다.

포스트시즌 타율은 0.250에 불과하지만, 출루율이 0.500으로 이젠 샌디에이고 타선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선수로 일지를 굳혔다.

김하성은 정규리그 다저스와의 경기에서 서부 지구에 속한 팀 중 가장 낮은 타율 0.136, 출루율 0.239를 남겼다.

우리아스에게 통산 9타수 무안타에 볼넷 6개를 골랐고, 커쇼에게 지난해 홈런 1개를 빼앗겼다.

포스트시즌은 정규리그와는 전혀 다른 경기인 만큼 김하성이 이번에도 신 스틸러가 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광주FC 박한빈·정호연, K리그2 43R 베스트11 선정

K리그2 최다승을 합작한 광주FC의 박한빈과 정호연이 베스트11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11일 K리그2 43라운드 베스트11을 발표했다. 광주 미드필더 박한빈과 정호연이 나란히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한빈은 지난 9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경남FC와의 홈패전에서 엄지성의 선제골에 관여하면서 시즌 6번째 도움을 기록했다.

'신인' 정호연은 후반 15분과 30분 각각 마이키와 산드로의 골에 기여하면서 2개의 도움을 올렸다.

광주는 이날 이견회의 골을 더해 4-0 대승을 거두고, 시즌 25승째를 수확했다. 2017년 경남이 작성한 24승을 넘어선 K리그2 최다승 기록이다.

승점도 85점을 만들면서 광주가 새로 작성한 기록을 또 경신했다.

전남드래곤즈의 3연패 탈출을 이끈 김현욱

(FW)과 이호권(DF)도 명단에 포함됐다.

김현욱은 지난 8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서울이랜드와의 경기에서 1-0으로 앞선 후반 7분 김수범의 패스를 받아 추가골을 기록했다.

이호권은 후반 36분 골키퍼 맞고 흐른 공을 잡아 슈팅을 날리면서 썩기골을 장식했다.

전남은 이호권의 골로 3-0 승리를 거두고, 3연패에서 벗어났다.

한편 43라운드 MVP는 대전하나시티즌 레안드로가 선정됐다. 레안드로는 지난 8일김포FC와의 원정경기에서 멀티골을 장식하며 대전의 3-0 승리의 주역이 됐다.

김포의 후반 공세가 매서웠던 이날 경기는 43라운드 베스트 매치에 선정됐다.

베스트팀은 부산아이파크다. 부산은 9일 충남 아산FC와 홈경기에서 라마스, 이한도, 이상현, 성호영의 골퍼레이드로 4-0 완승을 거뒀다.

<K리그2 43라운드 베스트11

▲MVP: 레안드로(대전) ▲FW: 레안드로, 김현욱(전남), 박재용(안양) ▲MF: 박한빈·정호연(이상 광주), 이진현(대전) ▲DF: 이호권(전남), 김재우(대전), 어정원·이한도(이상 부산) ▲GK: 이창근(대전) ▲베스트 팀: 부산 ▲베스트 매치: 김포(0) vs (3)대전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